

박지성 오늘 밤 맞대결 설기현



신정 연휴(12월30일~1월1일)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가 팬들을 찾아가고 있다.

‘음병 열전’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남·녀 프로배구와 전 반 라운드 막바지 경기를 치르는 프로농구가 이목을 끈다. 특히 잉글랜드 프로축구 경기에서는 박지성과 설기현이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프로배구·프로농구

연휴 첫날인 30일 오후 2시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윌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LIG와 현대캐피탈의 대결이 펼쳐진다. 이어 벌어질 여자부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 챔피언 흥국생명과 준우승팀 도로공사가 자존심을 놓고 첫 대결을 한다. 이밖에 같은 날 대전, 인천에서도 3경기가 열린다. 프로배구는 31일에도 천안, 수원, 대전에서 5경기가 이어진다. 프로농구는 연휴 내내 팬들을 맞이한다.

■ 연말·새해 연휴 흥미로운 스포츠

30일에는 5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가 부산 KTF와 홈경기를 벌이는 등 울산과 원주, 창원에서 모두 3경기가 벌어진다.

31일에는 인천 전자랜드가 전주 KCC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서울 삼성은 부산 KTF와 원정 경기에서 격돌한다. ‘황금 돼지해’인 새해 첫날에는 대구 오리온스와 안양 KT&G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가진다.

▲해외 축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설기현(27·레딩)이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어서 축구팬들을 설레게 한다.

맨유와 레딩은 30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맨유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라포드 스타디움에서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를 벌이는데 박

지성과 설기현 모두 선발 출장이 유력하다. 포지션도 박지성은 왼쪽 날개, 설기현은 오른쪽 날개여서 그라운드에서 자주 부딪치며 볼꽃 튀는 한 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격투기

종합격투기대회도 31일 잇따라 열린다.

‘테크노 콜리엇’ 최종전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K-1 다이내마이트 2006’에 출전해 바비 오로곤(나이지리아)과 ‘골리앗과 다윗’의 한판 승부를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또 유도 스타 출신인 재일교포 추성훈과 포환 던지기 간판 김재일이 링 위에 모습을 나타낸다. 케이블채널 수퍼액션이 31일 오후 4시부터 중계한다.

또 ‘얼음 황제’ 표도르 예벨리아네펬코(러시아)는 같은 날 ‘프라이드 남제(男祭) 2006’에 출전해 ‘서사모아의 괴인’ 마크 헌트(뉴질랜드)와 격돌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랭킹 도둑 맞았다

한국 수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마린보이’ 박태환(17·경기고)의 랭킹이 국제수영연맹(FINA) 홈페이지의 실수로 낮아졌다.

29일(한국시간) FINA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정된 정규코스(50m) 자유형 1,500m 2005~2006 세계 랭킹 1위는 14분 36초70을 기록한 독일의 파울 비더만(20)이며 2, 3위도 역시 독일의 크리스티안 하인(14분38초99), 토마스 루르츠(14분43초77)로 올라 있다.

박태환은 지난 8월 범태평양수영대회 때 기록인 15분06초11로 11위로 내려앉았다.

국제수영연맹 홈페이지 실수

독일 선수 3명보다 저평가돼

이들의 기록은 지난달 23일 독일 겨울수영선수권대회에서 작성된 것. 하지만 독일 선수 3명의 기록은 정규 코스가 아닌 쇼트코스(25m) 기록이라는 사실이 빠져 박태환의 랭킹이 크게 저평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1위 비더만과 3위 루르츠의 기록은 지난 1월 쇼트코스월드컵 때 세운 것이며 2위 하인의 기록은 지난 10월 유럽쇼트코스선수권 때 것이다.

쇼트코스는 벽을 발로 차면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턱 힛수가 2배 가량 많아 정규코스보다 기록이 단축된다.

박태환이 지난 4월 세계쇼트코스선수권에서 세운 자유형 1,500m 기록은 14분33초28로 러시아의 유리 프리루코프(14분23초92)에 이어 2위다.

FINA 홈페이지의 실수로 독일 선수 3명의 쇼트코스 기록이 끼어들면서 정규코스에서 박태환의 랭킹이 3단계나 내려 앉은 것이다. 자유형 400m와 200m도 마찬가지다. 비더만이 쇼트코스 기록으로 2종목 모두 1위에 올라가면서 박태환의 랭킹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S로마 “이영표 달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리그) AS 로마가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이영표(29·토트넘)를 데려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29일(한국시간) 영국 축구 전문사이트 ‘트라이벌 풋볼닷컴(www.tribalfootball.com)’에 따르면 로마 구단은 토트넘에 “이영표를 원하고 있으니 24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트라이벌 풋볼닷컴은 로마 구단의 다니엘레 프라데 사무국장이 임대 형식으로 이영표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토트넘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영표는 지난 8월 AS 로마에 이적하기로 했다가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 마음을 돌려 토트넘에 남았다.

지난 10월에도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영표

토트넘에 24시간 내 답변 요청

이영표측 “전혀 생각없고 있다”

가 로마행을 다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실제로 진전되지는 않았다.

이에 이영표의 에이전트인 쉼지현은 “완전 이적을 논의했던 구단에서 임대라는 조건을 들고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도”라면서 “임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수비벽 넘어 터치다운

UC 버클리의 러닝백 마션리치가 29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텍사스 A&M와의 미 대학 풋볼 홈리데이 보울 경기 3쿼터에서 10드 터치 다운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송희·위창수·앤서니 김 ‘내년 도약할 골퍼’ ESPN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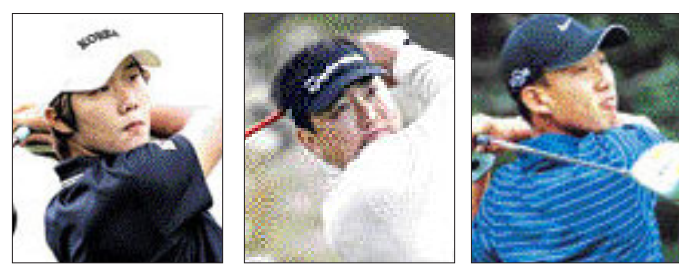
김송희(18·대원외고)와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 앤서니 김(21·한국이름 김하진)이 스포츠전문 사이트 ESPN이 선정한 ‘2007년에 도약할 골퍼’에 이름을 올렸다.

29일(한국시간) ESPN(espn.com)에 따르면 내년엔 두각을 나타낼 골퍼 18명을 선정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 데뷔하는 김송희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풀시드권을 따낸 위창수, 앤서니 김을 유망주로 꼽았다.

ESPN은 김송희를 올해 LPGA 2부투어에서 다섯 차례 우승하며 상금 랭킹 1위에 올랐다고 소개했으며, 지난해 2부투어에서 상금왕을 차지한 뒤 올해 LPGA 투어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이선화(20·CJ)의 뒤를 이어 활약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위창수에 대해서는 소녀 골퍼 미셀 위와는 성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선수라고 소개한 뒤 2006년에는 PGA 투어 상금 랭킹 186위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50위 내에 진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PGA 투어 카드를 받은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앤서니 김은 대담한 경기 운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후한 점수를



〈김 송희〉

〈위 창수〉

〈앤서니 김〉

받았다. 또한 골프 칼럼리스트 론 시락은 앤서니 김을 내년 신인왕 후보로 올려 놓았다.

ESPN은 이밖에 애덤 스콧(호주), 스텐튼 싱크(미국) 등을 PGA 투어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 꼽았고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밀어내고 1인자의 자리에 오른 LPGA 투어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울산 레안드롱 전남 온다

김영광 울산 이적 조건

1년간 임대 해주기로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23·전남 드래곤즈)을 영입했다.

울산은 29일 공격수 레안드롱(23·브라질)을 1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전남과 김영광의 이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영광은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는 울산의 동계 훈련에 합류해 새 동지를 틀게 된다. 김영광은 두 구단의 이적 협상이 마무리된 뒤 “전남에서만 프로 5년째 생활을 했다

다. 전남이란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 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

적을 결심했다. 전남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환경이라 기대 반, 설렘 반이지만 신나는 축구를 해보고 싶다. 전남 팬들께 감사드린다. 이적했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많은 응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2002년 K-리그에 데뷔한 김영광은 전남 수문장으로 다섯 시즌을 소화하며 78경기에 출전해 84실점했다.

구단 간 협의는 끝났지만 연봉과 계약 기간 등 세부 조건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울산 구단은 밝혔다.

‘리틀 칸’ 김영광은 2003년 20세 이하 청소년대표팀,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표팀에 이어 국가대표팀에 승선해 이운재(수원)의 뒤를 이을 차세대 태극호 수문장으로 각광 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0일(토)

▲최요삼 세계타이틀전초전(12:50·SBS 스포츠)

▲프로농구(LG-전자랜드)(14:50·X-sports)

▲V-리그(LIG-현대캐피탈)(13:30·KBSN Sports), <도로공사-흥국생명>(16:00·KBSN Sports)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레딩)(23:30·MBC ESPN)

31일(일)

▲NFL(워싱턴-뉴욕 자이언츠)(09:50·SBS스포츠)

▲프로농구(SK-모비스)(14:50·X-sports)

▲프로농구(전자랜드-KCC)(17:00·X-sports)